

한마음 한몸



SPECIAL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자선을 넘어 삶의 변화로
-OBOS 국제개발협력사업 인포그래픽

2016. 6. 통권 30호

One-Body One-Spirit MAGAZINE
vol. 30 / Summer / www.obos.or.kr



CONTENTS

- ☯ SPECIAL
- 3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자선을 넘어 삶의 변화로
-OBOS 국제개발협력활동 인포그래픽
- ☯ NOW
- 8 위험한 국가, 희망과 평화의 마을
- 11 함께라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 ☯ HOPE
- 12 희수에게 나눔과 생명의 기적을
- 14 내 마음의 소리를 읽어주세요
- ☯ TOGETHER
- 16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8 생애첫기부로 시작된 나눔의 병원
-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2 본부 새소식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바느질을 배워서 제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에요.”
파키스탄 북부 산간도시 라왈라크
지역 직업 기술교육 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는 여성들

통권 30호 | 여름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6년 6월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 SPECIAL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마음한몸운동은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부는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나눔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해외원조, 생명나눔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설립 이후 약 30년간의 해외원조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자선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전문적인 원조기구로서 성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체성사의 정신과 가톨릭사회교리에 기반을 두어 최빈국과 개도국의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자립을 위한 국제개발협력활동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본부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은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빈곤을 둘러싼 다양한 원인과 문제들에 집중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선을 넘어 삶의 변화로

OBOS 국제개발협력활동 인포그래픽

이러한 본부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몸과 피를 나누어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진 바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본부는 지난 30여 년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을 되돌아보며 인종, 국경, 지역, 종교, 문화 등을 넘어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야 함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

본부 국제개발협력활동의 네 가지 포인트

1

선택과 집중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본부의 지원금 확대

2

파트너십 중심

현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현지의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활동 지원

3

마을단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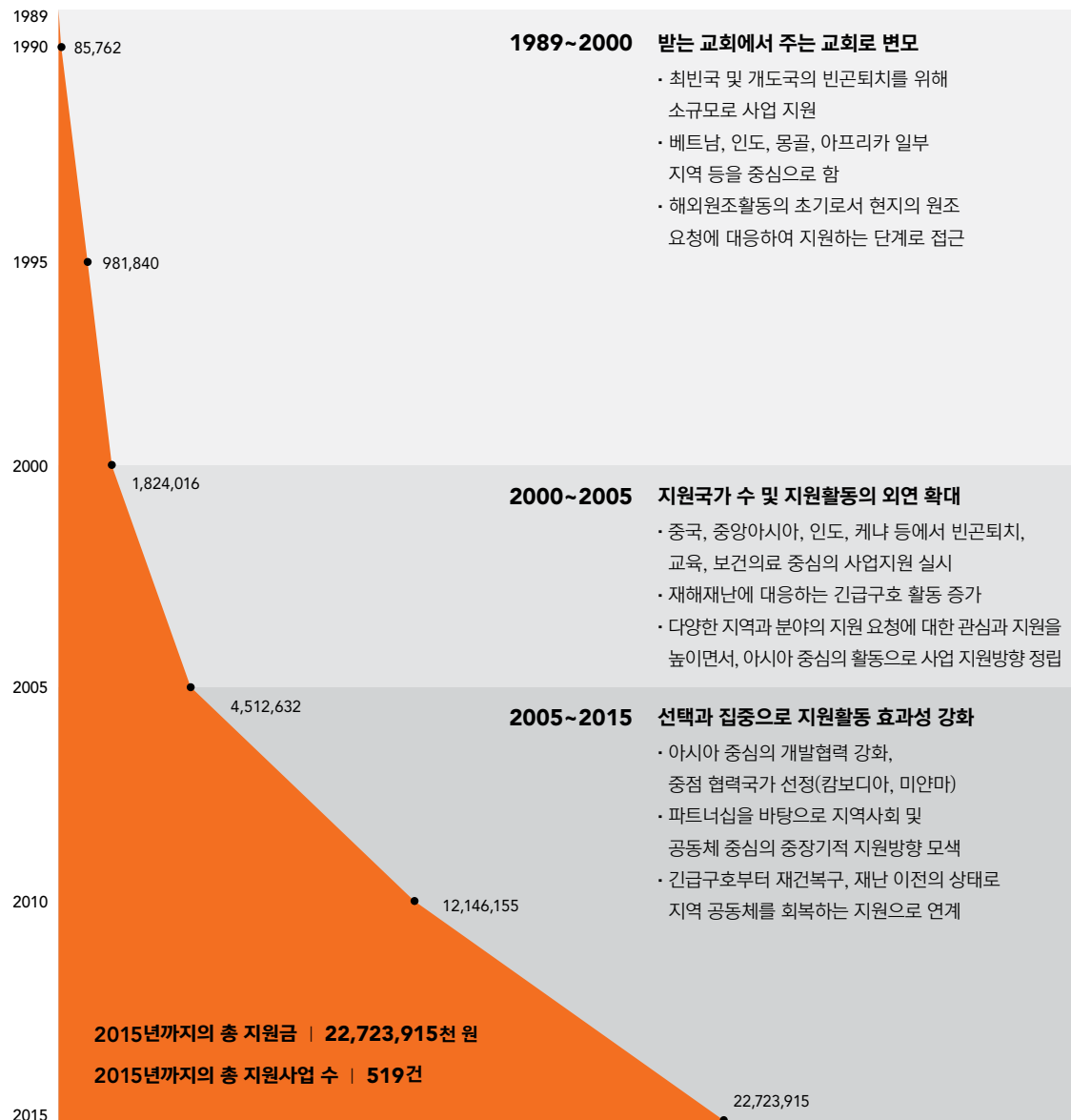
빈곤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마을단위의
개발협력활동 실시

4

장기적 관점

일시적 원조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
체계 및 방향 설정

시기에 따른 본부 국제개발협력활동의 변화 ■ 누적 지원액 | 단위: 천 원



국제개발협력활동의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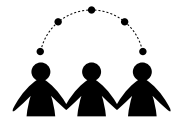
교육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학교 건축, 교사 양성 등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합니다.



인도적 지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식량, 의료 서비스, 주거시설, 재건 복구 지원을 통해 재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사회개발

빈곤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조직 및 역량 강화, 자원보호, 직업훈련, 아동교육, 의료 보건, 소득 창출 등 종합적인 발전에 참여합니다.



보건의료

보건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동진료 실시, 의약품 제공, 소규모 클리닉 건축 등을 진행합니다.



가톨릭교회 지원

가난한 가톨릭교회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하고 원활한 사목활동을 지원합니다.



농업

가난한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토양을 보호하고 다양한 농법 훈련을 교육하며 적절한 기술 습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주거환경

집이 없는 행려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를 위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애드보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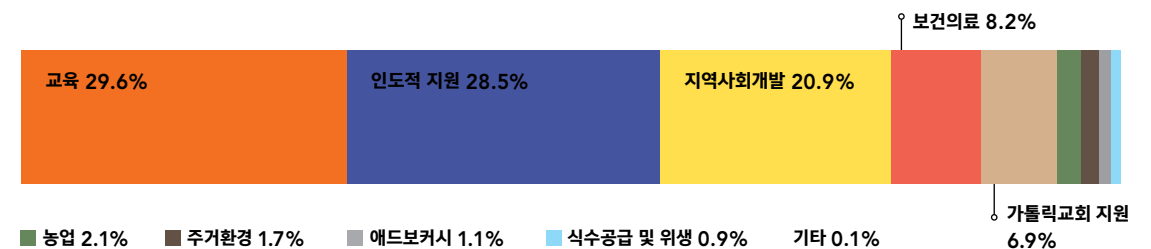
부정적인 사건과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지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식수공급 및 위생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절한 식수시설을 마련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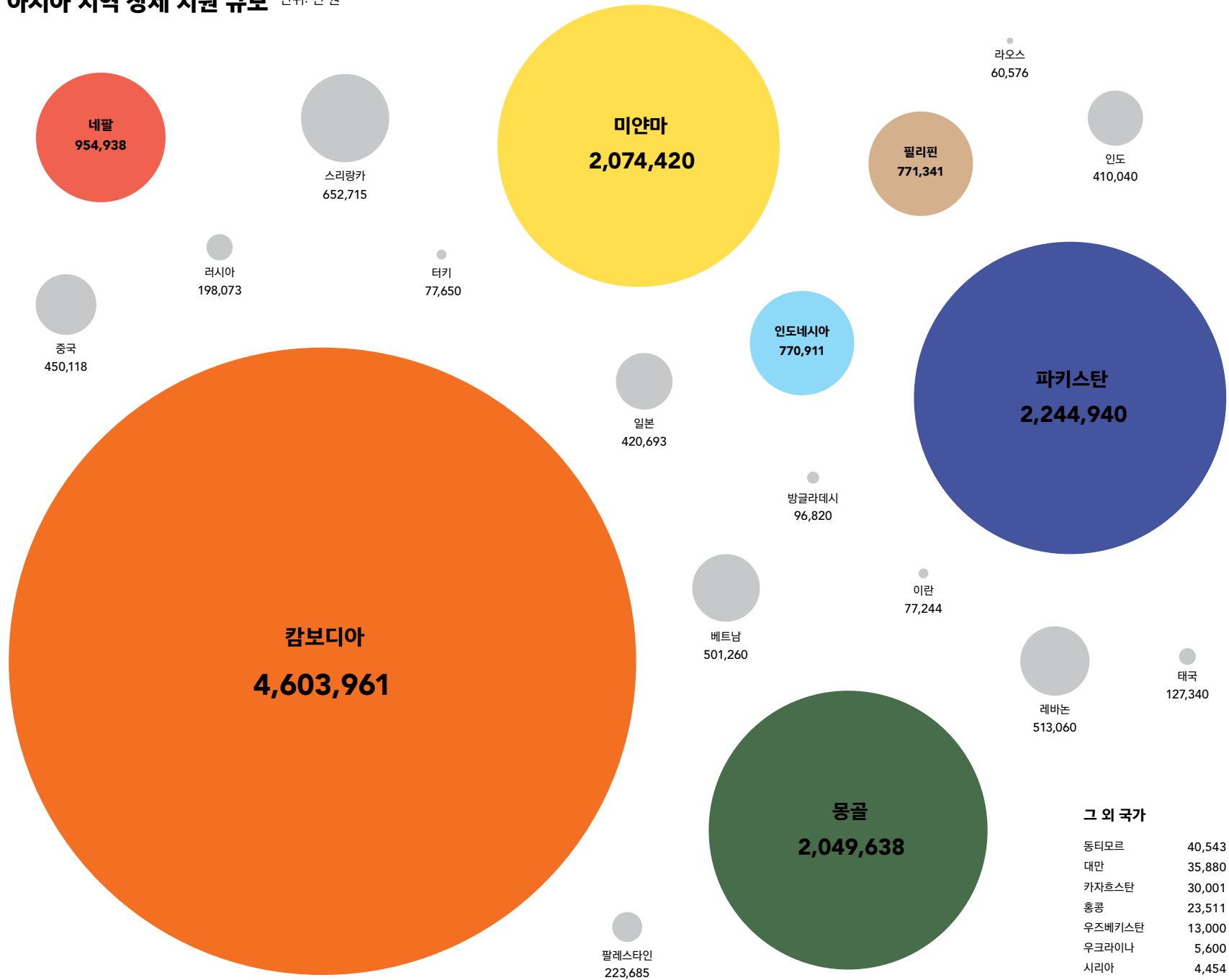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활동의 분야별 지원 규모 지원액 기준



국제개발협력활동의 지역별 지원 규모 단위: 천 원



아시아 지역 상세 지원 규모 단위: 천 원



국제개발협력활동에 대한 궁금증 다섯 가지

1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나요?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빈곤과 불평등 등으로 인해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더 취약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2 해외원조와 구별되는 국제개발협력활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해외원조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권익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의 발전에 관한 협력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을 의미합니다.

3 지원금은 어디서 오나요?

본부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소중한 후원금으로 마련됩니다. 본부의 탄생 때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각 성당 신자분들의 헌미헌금, 갓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생일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100원 모으기' 회원으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면서 소중한 자신의 유산을 나누시는 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지원금이 마련됩니다. 때때로 사회적 환원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과 일부 정부부처와의 협력사업 또한 지원금의 한 부분입니다.

4 지원하는 마을이나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본부는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취약계층의 인권을 살피고 가난한 자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이들의 협력자로서 일합니다. 이것이 곧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본부는 세계 곳곳의 파트너와 연대하며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선정한 곳에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본부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대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국가, 희망과 평화의 마을

16. 5. 23. - 16. 6. 1.

파키스탄 사업현장 모니터링

지난 5월 23일부터 10일간 본부의 국제협력팀 팀장, 파키스탄 사업 담당,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팀이 파키스탄 현지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본부가 진행한 지원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람직한 효과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국가입니다. 서북부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경계하며 아직도 테러와 국지적 분쟁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북부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의 분쟁으로 인해 국경마저도 모호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도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외국인 테러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파키스탄을 여행 철수 권고국가로 지정하고, 일반 여행자들의 방문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내립니다. 그만큼 파키스탄 사업현장으로의 모니터링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기관을 통해 초대장을 받고, 현지 정부의 승인을 얻고, 국내 파키스탄 대사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어렵사리 비자를 받았고, 주위의 우려를 잔뜩 안은 채 파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본부는 지난 2005년 파키스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 이후, 라왈라코트 지역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교육 지원(협력기관:PCSW&HR)과 파이살라바드 지역 아동교육 및 보건 의료지원 사업(협력기관:AIM)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첫 4일간은 파키스탄 동북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오가며 여성들을 위한 컴퓨터, 바느질, 작물 재배 등의 교육센터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평균 해발 1,600m에 달하는 가파른 산악지역에 형성된 마을과 도시들이어서 많은 남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큰 도시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지역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본부와 협력 중인 기관들은 이 여성들을 교육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컴퓨터 교육 센터에서 만난 한 교육생의 말입니다. 이슬람권의 여성을 생각하면 히잡이나, 부르카로 얼굴을 가린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소극적이라는 편견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과 열정에 가득 찬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현지 담당자에 의하면 이들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10년이라는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005년 지진 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성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낯선 남성들과 이야기 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지난 10년간 3천 명이 넘는 여성들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모여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해온 결과, 이제는 낯선 남성들에게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행사에 참여한 AIM(Identity, Merge & Action) SCHOOL 아이들



직업기술교육 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받는 여성



라왈라코트의 직업 기술교육 지원센터



AIM 클리닉에 진료를 받으려 온 산모와 가족들

그다음 일정으로 파이살라바드 지역으로 이동하여 빈곤가구 아동 학자금 지원 및 지역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IM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본부는 이 센터를 통해 현재 이 지역 빈곤가구 350여 명의 학생들의 학비 및 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현지 파트너 기관이 정말 자국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많습니다. 임신해도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학교가 없거나 학비가 비싸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기관은 더욱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을 설득합니다. 선생님들은 돈을 버느라 학교에 때때 가지 못해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린 아이들을 위한 야학을 운영합니다. 클리닉 스태프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생님들과 주민위원회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지금의 가난과 열악한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내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출장 전 파키스탄은 분쟁과 테러가 상존하는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출입도 제한적인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편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환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 꽃비를 뿌려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의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의미의 인사를 전하며 일일이 눈을 맞춰 악수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이 선한, 우리와 그리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방문으로 새삼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과 선입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꿈을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본부와 함께하시며 후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빈곤 가정자를 꽃비로 환영하는 아이들

함께라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지원(루시아)
상명대학교 가톨릭학생회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는 매년 주요 활동으로 조혈모세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2015년에 자원봉사자이자 실제 기증 희망자로서, 2016년 올해에는 자원봉사자 및 통솔자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과 올해의 제 포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저 동아리 부원으로서의 막연한 책임감으로 임했다면, 올해는 ‘작년의 결과를 올해에도 낼 수 있을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불안감들이 캠페인 전 날까지 저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일기예보를 통해 캠페인 당일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알려주고 끝나는 캠페인이 아닌, 기증자의 동의와 채혈을 요하는 캠페인이라 좋은 날씨 속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들기 전까지 기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캠페인이 실시되는 5월 24일, 제가 일어나자마자 들었던 소리는 무수히 쏟아지는 빗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캠페인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나를 응원하는 소리로 바뀌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모여 준비를 도와준 동아리 부원들, ‘비가 오는 데 밖에서 할 수 있겠니?’ 하며 걱정해 주셨던 학교 교직원분들, 우산을 펼쳐 들고

간식과 함께 직접 응원해주시러 오신 동아리 지도 교수님 모두가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모여서일까요? 오후 늦게까지 올 것 같던 비는 12시가 되기도 전에 멈추기 시작했고, 곧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회장으로서 홍보와 더불어 후배들을 이끌고 함께 참여해주신 문헌정보학과 이승욱 학우(고마운 마음이 커서 꼭 언급하고 싶네요), 나의 홍보활동을 보시고 기증까지 참여해주신 같은 행정학과 분들 덕분에 작년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는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장애가 찾아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우와 그 가족분들 또한 수천, 수만 명의 기증자와 함께라면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매우 낮은 일지 확률을 뚫고 우리 학교 내에서만 5명의 실제 기증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과 믿음이 모든 환자분들의 작은 힘이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희수에게 나눔과 생명의 기적을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희수(가명)

9세, 여, 전-B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2016년 4월, 국립암센터에서 이희수(가명) 환아의 치료비 지원금 전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암치료 중인 희수의 어머니가 병원에 오시는 날도 아닌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희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되려 저희가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거 같아 죄송스러웠습니다.

건강하고 쾌활했던 희수,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에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희수의 항암치료를 위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희수의 갑작스런 질병이 너무 원망스러운 와중에도 간호와 집안일을 병행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셨습니다.

희수의 경우, 처음 사용했던 기존 항암치료제의 부작용 등으로 이를 대체할 특수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로 인해 1회 300만 원이나 되는 큰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간 치료제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치료제를 투여할지도 미지수이기에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던 희수는 학교 가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백혈병 진단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등으로 심리적 충격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희수의 발병으로 인해 희수의 두 언니에게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미안해하며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부의 수녀님과 신부님 역시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행할 고액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신이 없지만, 희수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희수의 경우,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바로 희귀한 혈액형으로 인해 치료마다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수의 혈액형은 RH-B형으로 병원에서도 혈액 공급이 어려워 어머니가 직접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희수 옆에서 간호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희귀한 혈액까지 구해야 한다니 본부도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RH-B형 분들의 동호회가 있어 감사하게도 희수 어머니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시어 몇 번의 수급은 가능하였으나, 어머니 역시도 같은 분에게 반복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너무 죄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혈액을 수급 받아야 하기에 꾸준한 RH-B형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어려우신 와중에도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는 어머니께서는 활발했던 희수이기에 상심도 큰 만큼 잘 이겨낼 거라 이야기 해 주셨어요. 본부도 많은 분들의 나눔을 통해 희수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증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RH-B형을 가진 많은 분들이 나타나 주셔서 희수에게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봅니다. ☺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환우지원사업을 통해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 중에서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진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에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소개

백혈병·난치병아동 및 청소년 지원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24세 이하의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소아암 포함),
-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여 본부에서 정한 재산 및 월 소득 기준(최저생계비의 300%)에 못 미치는 환자

2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
- 최고 1,000만 원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신청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진에게 신청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환자 중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원

1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음
- 뇌사자 장기이식만 해당
-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여 본부에서 정한 재산 및 월 소득 기준(최저생계비의 200%)에 못 미치는 환자

2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
- 최고 1,000만 원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신청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진에게 신청

헌혈증 모집·지원 안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부터 다량의 출혈이나 골수의 이상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원활한 치료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헌혈증 모집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헌혈증 모집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인간의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혈액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사람들의 도움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헌혈자와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혈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며, 환우들이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헌혈증 지원

1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2 지원내용

- 헌혈증 1인 200매까지 지원
- 필요시 재신청 가능

3 지원신청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진에게 신청
(직접 신청시, 본당 사제 또는 수도자 추천서 첨부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추천서

헌혈증 모집·지원 문의 02)727-2293

내 마음의 소리를 읽어주세요

마음읽기 표로 내 마음 돌보기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삶입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뉴스가 넘쳐납니다.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일가족, 핏김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가족마저도 살해하는 사람들. 모두 죽고 죽이는 이야기뿐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게만 느껴집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 중에도 작은 행복의 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한 순간들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며 기쁨의 감정은 소중하게 기억해 주고, 슬프고 화나는 감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역시 건강하게 사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좋고 나쁘다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할 때, 삶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읽고 보듬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음 읽기표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 **STEP 1**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3~5분 정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달력 감정표에 있는 감정을 보며 오늘 나의 핵심감정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 **STEP 2** 핵심감정을 골라 감정표의 단어를 탁상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한 달력에 작성해도 좋습니다.
- **STEP 3** 매일매일의 감정을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한 후, 한 주 또는 한 달 후 나의 핵심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 나의 감정을 매일매일 알아주고 읽어주면서 친절하게 느껴주는 과정은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정서 돌봄의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잘 표현하는 일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과 직결됩니다.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이는 곧 억누르고 감추고 있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마음 읽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온 다양한 '감정'들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돌보아 주세요. ㊦

문의 02)318-3079 | www.3079.or.kr

201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비의 희년 캠페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2015년 3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 희년' 거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은 2015년 12월 8일(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하여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 희년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칙서 '자비의 얼굴(Misericordiae Vultus)'을 통해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교회와 각 개인이 특별한 은총의 때와 영적 쇄신의 계기로 삼고,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 주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약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다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며, 지금은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은 생각과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의미로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상처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특별히 이 '희년'에 상처입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아픔을 덜어주고, 자비로 감싸주며, 연대와 배려로 치유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권고대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아 '가톨릭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의 의미를 깨달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과 질병, 차별로 고통받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한 기도와 나눔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atholic Merciful like Father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낮선 세상에서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발을 헛디디는 순간
모두가 뛰어들어 구해낼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마음한몸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생애첫기부로 시작된 나눔의 병원

나눔가게·기업 226호 '김치과 의원'

나눔가게·나눔기업
김치과 의원

대표 김준우 가브리엘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56-1 김치과의원
문의 031)832-2875

김준우(가브리엘)님은 경기도 연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김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에서 군의관을 하시고 40여 년간, 단일 치과로는 가장 오래도록 의원을 지켜오신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기부'라고 이야기하는 김준우님을 만났습니다.

생애첫기부로 기부의 연을 맺다

김준우님은 2년 전, 딸 은우의 생애첫기부를 통해 처음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전달식에 직접 참여해 보니, 단순히 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준우님은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 기부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진료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을 빼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생애첫기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부의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부 참여의 연장선 상에서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 있는 병원 운영, 철학 있는 기부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철학에 대해 묻자, 김준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뢰가 부족한 사회인 것 같은데요. 가족을 치료하는 것처럼 신뢰받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렇듯 김준우님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돈보다 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사명의식은 기부에 관한 관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님은 딸 은우의 생애첫기부 때에는 지구촌 빈곤퇴치 분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부는 백혈 난치병 치료비 지원 분야에 후원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카가 <울지마 톤즈>의故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명도 세례자 요한으로 지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해외의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분야에 기부했었습니다. 또 친형이 학생 때부터 성가정입양원(국내입양을 지원하는 가톨릭 기관)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등 봉사활동을 오래 해왔는데요.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내 어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한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물었습니다. "미루다 보면 평생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기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보다, 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눔에 관한 김준우님의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다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지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



나눔가게· 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2016년도 여름호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이가현

생애첫기부

강우정 2016.03.08생 父 강만보 母 채원영 | **강동완 요셉** 2005.03.17생 父 강태우 母 김미영 | **강예은 요셉피나** 2008.01.15생 父 강태우 母 김미영 | **강해를 미카엘라** 2015.03.13생 父 강정수 母 유정 | **강희대 마르코** 2015.04.25생 父 강경국 母 고유리 | **고민서** 2016.01.05생 父 고운석 母 성민정 | **구민서** 2016.03.19생 父 구현모 母 장여정 | **구서윤** 2015.12.02생 父 구자민 母 박윤하 | **권지우 릴리안** 2015.01.02생 父 권경민 母 김효신 | **권지울** 2015.04.19생 父 권광호 母 김선영 | **김강민** 2016.01.12생 父 김정훈 母 추연희 | **김나민** 2016.03.14생 父 김영석 母 윤배정 | **김담울** 2015.05.13생 父 김광수 母 김도연 | **김라임** 2015.04.08생 父 김도연 母 박미연 | **김민성 크리스토퍼** 2015.03.18생 父 김현규 母 나주희 | **김서윤 라파엘라** 2016.01.02생 父 김효상 母 이주영 | **김연서** 2015.05.31생 父 김원종 母 함은혜 | **김연아** 2014.01.31생 父 김종태 母 손장미 | **김유준** 2015.03.28생 父 김호남 母 김선미 | **김윤아** 2014.01.31생 父 김종태 母 손장미 | **김응준 미카엘** 2015.03.12생 父 김승식 母 박찬민 | **김이연 에스텔** 2015.06.23생 父 김현석 母 안은경 | **김재연 안드레아** 2011.01.29생 父 김동우 母 황선애 | **김지원** 2013.05.06생 父 김재훈 母 노선영 | **김지유** 2015.04.29생 父 김태환 母 박혜영 | **김지우 요셉피나** 2015.03.12생 父 김동섭 母 김유라 | **김찬우** 2015.03.31생 父 김용운 母 유금선 | **김채원** 2015.04.29생 父 김철진 母 윤영실 | **김태린 헬리나** 2015.01.06생 父 김정현 母 손지은 | **김태완** 2015.04.06생 父 김효신 母 김빛나 | **김하연 요셉피나** 2011.01.29생 父 김동우 母 황선애 | **김혜준 올리비아** 2015.04.03생 父 김성민 母 신선미 | **나주원** 2015.12.15생 父 나경원 母 이진희 | **노유나** 2015.04.08생 父 노종우 母 이남금 | **문현석 이나시오** 2014.04.23생 父 문석민 母 신유경 | **박건울** 2015.03.26생 父 박선주 母 유아림 | **박다예** 2015.04.03생 父 박인석 母 신세화 | **박라온** 2015.11.16생 父 박철민 母 박혜선 | **박바다** 2015.04.17생 父 박상락 母 이주현 | **박서연 안젤라** 2014.01.03생 父 박주영 母 김지현 | **박서영** 2015.02.26생 父 박재훈 母 조민정 | **박선우 레오** 2015.03.01생 父 박원엽 母 김소연 | **박세은 라파엘라** 2015.09.01생 父 박인석 母 송종민 | **박승연 수산나** 2015.08.07생 父 박주영 母 김지현 | **박시현 올리바** 2012.04.09생 父 박성준 母 김동연 | **박시환** 2015.05.29생 父 박종호 母 백혜진 | **박예은** 2015.05.19생 父 박승찬 母 방금주 | **박유빈** 2014.03.05생 父 박준표 母 한나라 | **박유찬** 2015.02.26생 父 박정호 母 서서혜 | **박은호 엘리자** 2012.05.07생 父 박영기 母 서아현 | **박준서** 2015.05.06생 父 박창수 母 천유이 | **박채원** 2015.02.16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박채운 루시아** 2012.05.13생 父 박주영 母 김지현 | **박효이 에스텔** 2015.03.19생 父 박희수 母 구혜미 | **복맹이(태명)** 父 서재혁 母 박은영 | **서예린** 2013.06.21생 父 서민용 母 이지영 | **손준혁 올리오** 2015.04.20생 父 손동진 母 김보림 | **손재영** 2016.02.03생 父 손승현 母 공성주 | **손현 레이첼** 2015.04.27생 父 손예림 母 이경혜 | **송아영 마리스텔라** 2014.05.12생 父 송인상 母 김보람 | **송유준** 2015.03.19생 父 송용진 母 박주은 | **신재민** 2015.06.12생 父 신우석 母 이미진 | **신재웅 미카엘** 2015.02.10생 父 신하섭 母 유리나 | **신홍찬 베네딕토** 2015.04.09생 父 신광현 母 허원경 | **연태오 요한 비안네** 2015.03.01생 父 연지훈 母 이지연 | **오아린** 2015.05.01생 父 오동욱 母 이미진 | **오준서** 2016.01.23생 父 오재우 母 정소윤 | **위다인** 2015.05.04생 父 위성진 母 서가람 | **윤예준** 2015.02.23생 父 윤병규 母 박형숙 | **유지아** 2015.03.29생 父 유동춘 母 지혜미 | **유지호 마티아** 2015.05.14생 父 유현진 母 조현은 | **윤아진 보나** 2015.07.03생 父 윤원준 母 남하정 | **윤지유 글로리아** 2015.04.29생 父 윤석인 母 이성아 | **은선기 요한요셉** 2015.03.11생 父 은희석 母 이은실 | **이가현 노엘라** 2015.04.21생 父 이순규 母 유승연 | **이나을** 2015.03.13생 父 이문상 母 김수연 | **이도윤** 2015.04.09생 父 이현석 母 이윤아 | **이래은** 2015.04.03생 父 이준우 母 이지영 | **이상우** 2016.01.01생 父 이강혁 母 장근영 | **이서윤** 2015.03.06생 父 이경진 母 전정욱 | **이수현 프란치스코** 2015.03.10생 父 이우상 母 박현진 | **이시연 세레자 요한** 2015.05.01생 父 이 크리스토퍼 조가리아 母 이보경 | **이시하 프란치스코** 2015.04.22생 父 이한수 母 양송희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이아윤** 2015.04.16생 父 이인열 母 이선미 | **이예령** 2016.01.10생 父 이동환 母 김은정 | **이예서 엘리사벳** 2015.04.03생 父 이주호 母 오은경 | **이재열 빈첸시오** 2015.04.14생 父 이대희 母 이기쁨 | **이재훈 베네딕토** 2016.01.20생 父 이용희 母 마하림 | **이준서** 2015.04.30생 父 이민건 母 나인영 | **이준수 로베르토** 2011.04.17생 父 이승호 母 김이정 | **이지원** 2015.03.31생 父 이수영 母 김정란 | **이지훈** 2015.03.04생 父 이은철 母 황은욱 | **이채울** 2015.04.20생 父 이성문 母 강은영 | **이충현** 2014.02.07생 父 이성표 母 이주영 | **이현 안토니오** 2015.02.10생 父 이기진 母 김하나 | **임선 마리스텔라** 2015.03.16생 父 임규진 母 이매 | **임예원** 2015.04.18생 父 임상훈 母 김고은 | **임은형 스테파노** 2009.03.11생 父 임채현 母 이세민 | **임지은 힐라리아** 2014.12.03생 父 임병철 母 정미진 | **장현서 에드윈** 2014.10.12생 父 장영준 母 한세라 | **전승민 루도비코** 2016.01.10생 父 전진용 母 유수민 | **정규원** 2015.03.24생 父 정궁래 母 예소희 | **정리엘** 2016.01.26생 父 정상현 母 송현진 | **정예성** 2015.04.23생 父 정석원 母 정은주 | **정은하** 2016.02.22생 父 정진하 母 박은진 | **정의찬 가브리엘** 2015.09.08생 父 정태현 母 김수현 | **정주현 필립보** 2015.05.06생 父 정재택 母 최운형 | **정희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2015.03.23생 父 정다운 母 이승은 | **조민기 마르코** 2015.04.27생 父 조종호 母 유지영 | **조성윤** 2015.05.23생 父 조시영 母 황인영 | **조아준** 2015.03.22생 父 조성현 母 서명희 | **조유주 에스텔** 2010.03.29생 父 조수결 母 조아영 | **조윤진 엘리사벳** 2015.06.06생 父 조재후 母 윤인선 | **조준희** 2016.01.09생 父 조성찬 母 구신애 | **조한나** 2015.10.18생 父 조휘준 母 진정현 | **조현울** 2015.05.07생 父 조율재 母 유경화 | **지서안** 2015.04.01생 父 지대현 母 이기람 | **차건호** 2015.03.02생 父 차동열 母 송정하 | **차윤솔** 2015.05.07생 父 차성민 母 장진아 | **최고는 플로라** 2015.02.14생 父 최인호 母 정유나 | **최다연 마리스텔라** 2012.02.29생 父 최정배 母 김은진 | **최리안 안드레아** 2010.02.22생 父 최영훈 母 전선영 | **최선하 스테파노** 2015.05.06생 父 최석재 母 허보영 | **최승** 2015.05.01생 父 최대성 母 김지인 | **최승아 그라시아** 2015.03.25생 父 최두일 母 박소정 | **최연서 베로니카** 2015.02.16생 父 최동환 母 이은정 | **최유석 베네딕토** 2015.03.04생 父 최순호 母 서수연 | **최은준 야고보** 2015.05.16생 父 최인환 母 김선영 | **최지섭** 2016.01.15생 父 최상선 母 김혜민 | **한걸** 2015.04.17생 父 한현성 母 김지혜 | **한소윤** 2015.03.15생 父 한우식 母 안선영 | **한승현 미카엘라** 2015.04.03생 父 한두성 母 김혜리 | **한예준 가브리엘** 2010.03.25생 父 한석수 母 김정윤 | **한재이** 2015.04.04생 父 한진 母 김하영 | **한지민 에밀리아** 2015.01.30생 父 한표경 母 윤경아 | **홍유준** 2016.02.05생 父 홍상기 母 나수현 | **황인나 프란체스카** 2015.04.10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 **황지우 레베카** 2015.03.30생 父 황재승 母 임현선

두 번째 기부

고다윤 2014.03.08생 父 고용수 母 강현정 | **고주원** 2014.03.08생 父 고용수 母 강현정 | **권성운 다니엘** 2014.03.05생 父 권정근 母 김은혜 | **김나을** 2014.02.06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 **김다송 연희 마리아** 2014.04.14생 父 김영부 母 송해련 | **김도경 데미안** 2014.04.02생 父 김동현 母 이하영 | **김예린 카타리나** 2014.04.23생 父 김태영 母 방진원 | **김지유** 2015.09.11생 父 김종욱 母 이은정 | **김진후 에드워드** 2015.12.12생 父 김정민 母 손영지 | **김태연** 2014.03.31생 父 김재현 母 윤인나 | **김하은** 2014.04.03



황인혜, 황인지, 황인서, 황인나



박바다



한재이



정예성



박시환

생 父 김환중 母 이사슴 | **나윤서 에밀리아** 2014.03.04생 父 나상오 母 구상희 | **문소은 델핀** 2010.05.03생 父 문석민 母 신유경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생 父 박정훈 母 최형빈 | **박소울** 2011.09.21생 父 박선주 母 유아림 | **박주연 마리스텔라** 2013.06.18생 父 박준성 母 김보나 | **박하윤 일루미나** 2013.03.08생 父 박찬익 母 하영재 | **배유나 소피아** 2009.08.27생 父 배중성 母 김형진 | **서동환 필립보** 2008.12.21생 父 서영준 母심정애 | **서하을 프란치스코** 2013.03.14생 父 서지훈 母 김수연 | **안정민** 2014.05.13생 父 안병철 母 신채은 | **오예람** 2015.03.10생 父 오용하 母 전혜연 | **유태윤 페트릭** 2014.03.15생 父 유위성 母 장영 | **이유준 다니엘** 2014.03.12생 父 이찬희 母 채윤정 | **임소울** 2014.03.11생 父 임찬택 母 홍영미 | **장재법** 2015.03.25생 父 장계성 母 하윤주 | **정연아** 2014.02.25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 **조서희 마리아** 2015.02.17생 父 조낙기 母 조선미 | **조원재 토마스 아퀴나스** 2014.02.25생 父 조장호 母 이세라 | **최설리 마리스텔라** 2012.05.11생 父 최지수 母 권애린 | **하다혜** 2014.04.30생 父 하준호 母 김효숙 | **한데레사 데레사** 2009.03.22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홍지원** 2014.04.21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 **황인서 엘리사벳** 2012.11.17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세 번째 기부

고민을 2015.06.11생 母 고영미 | **권아아린 이레네** 2014.06.01생 父 권춘식 母 최선영 |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 **김서울** 2013.04.03생 父 김선재 母 최현정 | **김은우 다니엘라** 2013.03.14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 **김주현 프란치스코** 2013.03.30생 父 김동은 母 오지정 | **심세형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운 母 이근정 | **염지유 에디트** 2012.01.13생 父 염정훈 母 박시원 | **오하정 카타리나** 2012.05.03생 父 오택문 母 은현정 | **윤진우 라파엘** 2013.05.28생 父 윤승배 母 최운형 | **이도현 대건 안드레아** 2012.07.05생 父 이석환 | **이소울** 2013.05.09생 父 이성문 母 강은영 | **장지훈** 2013.03.21생 父 장현석 母 정효빈 | **정우혁**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 **정하준 미카엘** 2013.04.10생 父 정용욱 母 안명은 | **조윤재 알로이시오** 2014.03.12생 父 조현진 母 조효진 | **주하은** 2014.02.13생 父 주정호 母김동희 | **지서윤** 2013.02.11생 父 지대현 母 이기람 | **차규림 크리스티나** 2013.03.28생 父 차규상 母 고예림 | **최윤 마리스텔라** 2013.03.13생 父 최지환 母 김희원 | **한서윤 세라피나** 2014.10.02생 父 한동규 母 송영은 |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 **한정현 대건 안드레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 **황인지 스텔라** 2010.02.23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 **황인혜 발레리아** 2008.04.26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네 번째 기부

김보민 보나 2012.05.03생 父 김태환 母 박정미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충문 母 정희정 | **김지안 잔다르크** 2012.01.29생 父 김태한 母 박혜영 | **김효주 아네스** 2002.04.29생 父 김요한 母 이현하 | **문규림 크리스티나** 2012.02.09생 父 문현기 母 박미선 | **박설아** 2012.04.24생 父 박세현 母 손은진 | **박소울 요안나** 2012.03.26생 父 박광진 母 박봉정 |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 **박지울**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운 母 이근정 | **이은빈 글라리아** 2004.10.03생 父 이재현 母 송외숙 | **이지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 **이한걸 리노** 2012.05.29생 父 이승학 母 김윤경 | **이형민 사도요한** 2014.03.07생 父 이형화 母 류민경 | **조서은 그라시아** 2012.03.20생 父 조재법 母 도해리 | **황정원 다비드** 2004.12.29생 父 황상묵 母 김현수

다섯 번째 기부

강서윤 스콜라스티카 2004.06.25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강서진 요안나** 1994.04.29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해순 | **이은혜 데레사** 2006.04.19생 父 이재현 母 송외숙 |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父 정용운 母 김애리 | **정수아** 2011.04.29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여섯 번째 기부

고영훈 요한 2013.04.13생 父 고운석 母 성민정 | **김지원**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 **황지윤 아네스** 2010.03.05생 父 황상묵 母 김현수

일곱 번째 기부

김지원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생일 기부

권영자 이레네 1956.04.04생 | **김규정 프란치스코** 1982.04.27생 | **윤지원 아네스** 1986.03.08생 | **이은철** 1981.03.25생 | **전남숙** 1940.04.27생 | **주성민 에델베르토** 1988.02.24생

고인을 기억하며

고 두경자 베르나벳타

어버이날 감사 기부

박정배 & 임정여 수산나

아홉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감사 기부

우수연 카타리나 | **이서연 올리아나 라파엘라** | **이세영 미카엘** | **탁정호 베드로 & 김세정 로사리아**

스승의 날 감사 기부

도안성모어린이집 | **푸른샘 어린이집**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조원종 & 범명야 로즈마리 500일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김중영 헨리코 & 조익희 요안나 결혼10주년 | **박인식 디모테오 & 송종민 로사리아** 결혼4주년 | **양승환 프란치스코 & 박상수 카타리나** 결혼10주년 | **오재영 & 김은주** 결혼4주년 | **이상현 루카 & 박민정 루시아** 결혼2주년 | **이정웅 다니엘 & 이소희 데레사** 결혼2주년 | **이주홍 요한바오로 & 민송이 엠마** 결혼2주년 | **정영철 & 이희원** 호주 아네스 결혼기념 | **조원경 & 이윤서 유스티나** 결혼기념

1 자살예방 교육에
관심과 참여 이어져



본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4~6월 동안, 인천 갈산동성당, 서울 서초동성당, 서울 명동성당, 공군 천주교 성모회 소속 군 가족 및 군종신부, 서울가톨릭대 신학과 2학년, 천주교 수원교구 신학생 생명연수 등 총 1,000여 명에게 생명존중·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내딛는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치료비 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구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이OO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이OO	전-B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김OO	급성골수성백혈병	해운대백병원	1,000
	이OO	간경화, 간암	국립암센터	900
	최OO	골수이형성증후군	고대안암병원	1,000
긴급지원사업	장OO	연골육종, 아래잇몸암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900
	편OO	알콜의존성증후군	카프병원	104
	김OO	시신경척수염, 다발성경화증	국립암센터	1,000
	박OO	뇌하수체선종, 급성횡단척수염	국립암센터	500
	박OO	간이식후 치료	국립암센터	1,000

2 수원교구 제1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본부는 수원교구와 함께 지난 5월 8일 남양성모성지에서 시행한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 중 ‘제1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원교구 내 장기기증희망자 및 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기증 교육과 봉헌 갱신식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기증결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행사 중에는 생명나눔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교회 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본당 및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성당(주임 이계철 신부), 인천 갈산동성당(주임 김용기 신부), 서울 동작동성당(주임 김호영 신부), 서울 구파발성당(주임 이원용 신부)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띠앗누리 21기 선발 및
활동 시작

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띠앗누리 21기’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띠앗누리 21기 단원들은 오리엔테이션(6월 4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네 차례의 배움터, 네팔로 파견되는 현지활동, 국내 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통해 진정한 ‘지구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6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경화여자고등학교(5월 4일), 길음중학교(5월 25일), 전동중학교(5월 11일, 6월 9일), 계성고등학교(5월 25일, 6월 8일, 6월 15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 2016년 상반기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2016년 상반기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생생사목부 및 가톨릭생명운동네트워크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조혈모세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0개 대학, 2개 성당에서 총 26회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여 1,587명(전년도 이월 8명을 포함)과 가톨릭생명나눔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기증희망을 해주시 78명을 포함하여 총 1,665명의 기증 희망자를 등록하였습니다.

7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참여 -
생명나눔 캠페인



본부를 비롯한 불교 등의 종교계와 장기기증 관련 민간단체, 학계단체 등 국내 최다 장기 등 기증관련 단체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참여하여 생명나눔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이식학회장의 특별강연, 기증자 및 수혜자 사연나눔, 공연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외 로타리언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본부는 6월 21일에 의정부성모병원 및 국제라이온스협회(경기북부지구)와 함께 라이온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9 기금협력사업 모니터링



본부는 4~6월 사이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의 기금협력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부는 현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되어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외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유무선 전화를 통해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